



## 한·미 FTA는 국가적 재난이다!!

이승호 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한·미 FTA 체결을 위한 본 협상이 지난 5일부터 닷새간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2의 을사조약이라 항변하며 그토록 반대하던 협상을 정부가 드디어 시작한 것입니다.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떠나 국제관계 등 모든 면을 고려하더라도, 한미 FTA가 우리 사회에 끼칠 폐해가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FTA는 여타 FTA와는 달리 “경제+정치+외교안보+군사적 포괄협정”으로, 지정학적 이유로 본래 미국 경제권에 속해 있던 멕시코, 캐나다, 호주를 제외하면 요르단, 파나마, 바레인, 이스라엘 등 미국의 전략 거점 역할을 해 온 국가들과 군사안보 강화를 대가로 한 보다 포괄적인 협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미국식 FTA는 미국의 초국적 자본과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틀이 짜여 있어 대다수 국가들은 미국과의 FTA 체결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이 15개국에 불과하고 멕시코, 캐나다, 호주를 제외하면 모두가 중남미와 중동의 약소국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FTA로 인한 피해는 멕시코의 사례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93년 나프타(NAFTA :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멕시코 정부는 지금의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프타 체결 이후 멕시코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해 외형적인 면에서는 성공한 듯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멕시코 수출의 상위기업을 현지 미국법인이 독차지하였고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멕시코는 폐렴에 걸린다' 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멕시코 경제는 미국 경제에 완전히 종속되어버린 것입니다.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는 농업부문의 피해는 물론이고 연평균 GDP 증가율이 현저히 감소했고 절대빈곤으로 분류되는 인구도 전체의 31%에 이르는 등 사회 양극화와 빈곤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한동안 외형적 성장에 눈이 멀어 나프타 이후 32개국과의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당국은 더 이상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고까지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식 FTA이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현재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FTA 협상은 도처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스위스가 “농업분야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에 반발해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한데 이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에콰도르 등 협상이 진행 중이던 나라에서 줄줄이 미국과의 FTA를 중단 또는 무기한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FTA협상을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 태국, 페루 등지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투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최근 태국의 탁신 총리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했던 대중투쟁의 주요 이슈 중 하나도 미국과의 FTA 체결을 중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방식대로 우리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경제적 차원에 한정된 관세장벽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필요에 따라 외국자본의 극단적 이윤추구를 규제하는 비관세장벽까지 제거되어, 국민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 정책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물, 전기,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로 공공요금은 급증하고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것이며, 노동과 환경 관련 규제가 철폐되어 고용의 질과 환경 파괴는 극에 달할 것입니다. 대학등록금은 지금의 10배 이상 급증하고 가뜩이나 높은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솟고 건강보험이 폐지되어 맹장수술 한 번 하는데 1천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농업과 식량안보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

지금 정부는 한·미 FTA를 그 어떤 것보다 1순위로 두고 최단기간내 협상을 종결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최악으로 했다는 멕시코조차 협상하는데 3년이 소요되었고, 한·칠레 FTA 협상이 3년, 쌀이라는 한가지 품목의 국회비준에도 1년 이상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미국의 TPA(무역촉진권한법)을 이유로 고작 10개월만에 타결짓다는 것은 그야말로 졸속적이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미 FTA는 한·칠레 FTA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한국사회와 체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일대 사건입니다. 미국과의 FTA협상은 원점에서 충분한 연구와 피해산업에 대한 선 대책을 강구하여 재검토되어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에게 있어 미국이 아닌 중국이 제1의 수출국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최근의 달러화 약세로 오히려 대미수출이 늘수록 손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보고서조차 한미FTA를 체결하면 4년 이내에 기존의 대미흑자마저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달러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70%가 수출에 의존하므로 대미 수출 증대가 살길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오히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지로의 수출 다변화를 꾀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폐해가 속속들이 지적되면서 처음에는 농민과 영농인에서 시작된 한·미 FTA 반대 물결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여당 내부에서조차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FTA 저지는 특정분야 종사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아닌 국가 전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오는 7월 10일부터 한·미 FTA 2차 협상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지난 1차 협상은 말 그대로 한·미 양국의 양허안을 제출하는 수준이었지만 이번 2차 협상부터 구체적 쟁점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가 예정되고 있어, 이번 협상이 한·미 FTA 협상의 성과와 관련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올바른 판단과 더불어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